

[보도자료]

2026-09-17

라이프자산운용, 한미약품 감사위원회에 북경한미 특별감사 요청

북경한미-코리그룹 거래의 이해상충과 내부통제 부실 지적...“감사위가 직접 조사해 10월 30일까지 결과 공개”

라이프자산운용이 한미약품 감사위원회에 북경한미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북경한미와 룬메이캉간 거래 양측의 의사결정에 동일인이 관여하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발생했고, 그 결과 룬메이캉으로부터 판매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비대칭적인 계약 조건도 점검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경영진과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북경한미 거래의 적정성을 직접 감사해 그 결과를 주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17일 한미약품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주주서한을 보내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이하 “북경한미”)와 룬메이캉(Beijing Medi'Care Co., Ltd.)간 거래 및 북경한미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를 수행해 결과를 오는 10월 30일까지 주주에게 공개하고, 이사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인력,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요청의 핵심이다.

중국 시장에서 북경한미는 의약품 생산·공급을, 룬메이캉은 유통을 담당한다. 두 회사는 거래 관계상 각각 매도자와 매수자이므로 가격과 결제 조건 등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이에 따라 상호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북경한미의 동사장(이사회회장) 겸 법정대표자는 룬메이캉의 지배회사인 홍콩 코리(COREE Company Limited)의 실질 소유주이기도 하다. 사실상 동일인이 거래 양측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인 만큼,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라이프자산운용의 판단이다.

계약 조건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콩 코리의 2025년 연결 매출 가운데 87.7%가 한미그룹 제품에서 발생한 만큼 코리그룹은 한미그룹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경한미는 새로운 유통 조건을 다른 유통사보다 룬메이캉에 먼저 제시해야 하고, 룬메이캉은 이를 우선적으로 수락할 권리를 갖는다. 북경한미가 룬메이캉과의 유통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라이



프자산운용은 이런 조건이 어떤 판단과 승인 절차를 거쳐 정해졌는지 한미약품 감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려는 매출채권에서도 나타난다. 아직 받지 못한 판매대금인 룬메이캉 매출채권은 한미약품 연결 기준 2023년 말 351억 원에서 2025년 말 1,254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6월 말에는 약 1,084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점보다 50% 많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7월 채권 회수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매대금을 회수하더라도 거래 양측의 의사결정에 동일인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이에 라이프자산운용은 경영진의 자체 점검이 아니라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계약 체결 경위와 거래 조건, 채권 관리, 대손충당금 판단, 모회사의 감독 실태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법 제412조의5와 제415조의2 제7항, 한미약품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자회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한미약품의 사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8월 제넨텍과 임상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약 3조 1,892억 원 규모의 차세대 비만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우수한 사업 성과가 기업가치에 온전히 반영되려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지배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라이프자산운용의 판단이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공동대표는 “문제의 본질은 부실채권이 아니라 감독의 부재이며, 이는 결국 지배구조 문제”라며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주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자료문의: 박주홍 인게이지먼트팀장 변호사(jhpark@investlife.com)

이민호 인게이지먼트팀 과장(minori@investlife.com)

배포시점: 즉시